

민주당 전남도당 기초단체장 3명 컷오프...경선 후보 발표

20곳 경선·해남은 명현관 군수 단수 추천 현역 단체장 컷오프 기준 '고무줄 잣대'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19일 6·1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전남도당은 심사 중인 담양을 제외한 기초단체 21곳 중 20곳은 경선을 실시하고 해남군은 명현관 현 군수를 단수 추천했다.

경선이 실시되는 20개 지역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다.

3인 경선을 실시하는 6곳은 나주시 윤병태·이민준·최용선, 광양시 김재무·문양오·이용재, 장성군 김한중·박노원·유성수, 영암

군 배용태·우승희·전동평, 무안군 강병국·김대현·이정운, 신안군 김명원·박석배·박우량 후보로 압축됐다.

2인 경선을 하는 9곳은 목포시 강성휘·김종식, 곡성군 이상철·이재호, 고흥군 공영민·박진권, 보성군 김철우·임영수, 화순군 구복규·문행주, 장흥군 박태수·김성, 진도군 박인환·이재각, 영광군 김준성·이동권, 함평군 김경자·이상의 후보가 본경선에 올랐다.

여수시 강화수·권오봉·전창곤·정기명, 순천시 손훈호·오하근·장만재·허석, 완도군 김신·신영규·신우철·지영배, 구례군 김순호·

박양배·신동수·왕해진, 강진군 강진원·서재원·이승욱 후보는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었 시 2인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후보자 추천 결과에 불복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천심사 결과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 강인규 나주시장 등 현직 기초단체장 3명이 컷오프됐다. 이들 후보들은 불공정 심사를 주장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이다.

장흥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후보 4명이 경선을 보이콧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일부 예비후보들도 전남도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6·1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전남도당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당 제공)

소병철 의원, 순천시 '지방교부세' 역대 사상 최대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준비 중인 순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도내 최대치인 동시에 순천시 역대 사상 최고액인 6,2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206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소병철 의원이 백방으로 발품을 팔고, 순천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 확보 전략을 치밀하게 실행한 결과라는 후문이다.

소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순

특히 소 의원이 지난해 발의하여 통과시킨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에 의지하여 올해 4월에는, 순천시 예산팀과 협력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단일사업 지원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액인 30억 원을 확보하며 총 70억 원의 국비로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로 직접 내려가 기재부 예산실장과 담당 과장 등을 면담하

사상 최고액인 6225억 원

여 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4대 핵심 예산을 '2022년 예산안'에 모두 반영·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사업, ▲순천만 생태정원거리조성사업, ▲한반도 분화구정원 조성 사업, ▲미세먼지차단숲·실외정원 조성 등 4대 핵심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의장, 당대표 등을 면담하며 국제 박람회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평소 두터운 네트워크가 있던 국토부 및 행안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며 전향적인 예산 지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시의 사상 역대 최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 그동안 예산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순천에서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오가며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순천시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 특히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신해 주신 부시장과 예산팀 공무원들께 각별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앞으로도 순천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순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안철수 "새 정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범국가 만들 것"

"4·19는 모든 민주화운동의 아버지"라 평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9일 "4·19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였다"며 "새로 출범할 정부는 민주주의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제62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모범국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만일 4·19가 없었다면, 그 날 학생과 시민들의 목숨을 건 시위가 없었다면, 이 땅

의 민주주의는 영원히 소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저는 4·19가 있었기에 5월의 광주도, 1987년 민주화운동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4·19는 모든 민주화운동의 아버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대선 역시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권력 10년 교체설을 깨고, 정권이 잘못하면 5년 만에도 바뀔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어느 쪽도 소홀히 하거나 퇴보해서는 안 된다. 물론이며,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선진화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62년 전,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던 시민들의 뜻에 보답하고, 경제현장에서 빛났던 일하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들의 뜻을 잇는 길"이라며 "이 땅에 민주정부가 존속하는 한, 4·19의 정신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